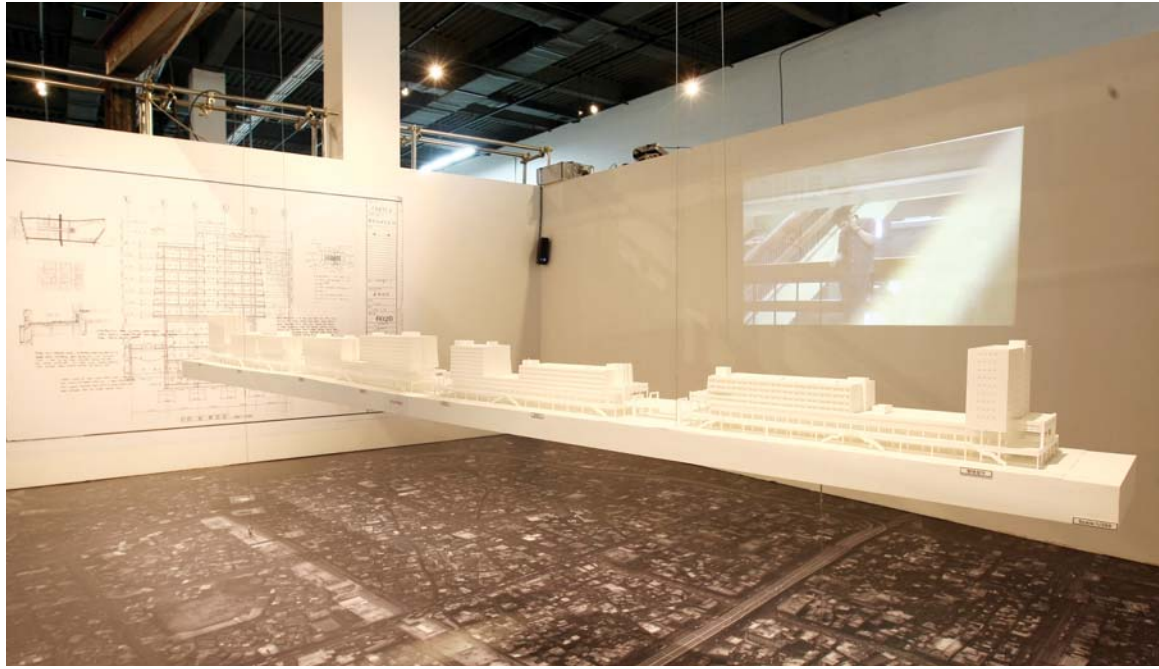


‘세운상가’



알고 보면 더 재밌다

$d = D \neq d$

‘금슬이 좋다’ 어원을 만든 악기는?

“흔히 부부사이가 좋으면 ‘금슬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고대 악기인 고금(琴)과 슬(瑟)의 소리가 서로 잘 어울리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악기가 바로 고금입니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의 주전시장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제4갤러리에는 고금이라는 악기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숨은 뜻을 알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처럼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는 다양한 의미와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작품이 많다. 전시장 곳곳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들의 도움을 받아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낸다면 더욱 풍부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품 재활용 ‘저비용 인큐베이터’

가장 오래된 언어 ‘a’에서 가장 어린 글자 ‘ㅎ’까지

▲‘d=D*d’는 주제를 보는 코드 =제2전시실의 ‘기아차 K5’는 차량 디자인 과정의 클레이 모델과 완성차, 택시 등 3대의 자동차와 모형을 선보인다. 이들 차량을 통해 K5가 만들어지고 택시로 활용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하얀 천막으로 가려져 어렵듯한 실루엣만 볼 수 있다.

천막에는 ‘K5 d=D*d’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d=D*d’는 디

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디자인이 아니라는 뜻의 이번 전시의 주제인 ‘도가도비상도’를 문자와 수학 기호를 사용해 디자인한 것이다.

또 ‘K5 d=D*d’라는 의미는 K5 차량의 클레이 모델(d)을 본떠서 만든 완성차(D)가 디자인(d=D)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K5는 자동차 디자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K5 택시’(d)는 디자인이 아니라고(D=d) 생각하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d=D*d 코드’는 제4전시실 ‘나우루비가’에서도 등장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의 멸망 과정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는 ‘LIM d=0’이라는 도식이 등장한다. 영광식이 풍부했던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지만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파괴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공간을 변해 버렸다.

‘LIM d=0’는 자연이 허락한 한계(Limit)를 넘어서는 파괴의 디자인은 결국 ‘0’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경고인 셈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이렇게 깊은 뜻이. =제3전시실의 ‘저비용 인큐베이터’는 좋은 디자인이란 꼭 세련되고 최첨단일 필요는 없다는 것

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과거 지진으로 교통망은 인도로 최신 디자인의 인큐베이터 8대를 지원했지만 단 1대도 사용할 수 없었다. 전력 사정이 나쁘고, 최신 디자인 제품에 맞는 부품과 수리공이 인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해서 만든 게 ‘저비용 인큐베이터’다. 자동차 부품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동차를 고칠 정도의 기술만 있어도 이 인큐베이터의 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전시실에 소개된 ‘농구공-양동이’도 대표적인 ‘빈자의 디자인’이다. 중국 농부들이 구멍난 농구공에 손잡이를 달아 양동이로 만든 실제 사례를 통해 세련되지 않아도 굉장한 효율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 ‘알파에서 히읏까지’ ‘세운상가’ ‘필드’ 등의 작품에도 숨은 뜻이 담겨있다. ‘알파...’는 가장 오래된 언어의 첫 글자인 알파 ‘α’에서 출발한 거대한 선이 가장 나이 어린 글자인 한글의 끝 글자 ‘ㅎ’과 연결시켰다. 문화와 시공을 뛰어넘어 언어의 디자인이 서로 교묘하게 겹치는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준다.

또 ‘세운상가’는 승효상 공동감독의 스승인 건축가 김수근의 업적을 기리는 일종의 헌정 전시다. 아이웨이웨이의 ‘필드’는 정치적인 이유로 전시 개막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웨이웨이 공동감독의 예술 세계를 지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참신... 다양... 독립영화 맛보기

‘개성만발 한국독립영화전’ 10월 12일까지 광주극장



30일 ‘도약선생’ 관객과 대화

다양한 독립영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개성만발 한국독립영화전’이 오는 10월 1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도약선생’은 본격적인 연애관계로 진입하고 싶어 진지한 액션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와 사랑을 다 거짓말이라 믿는 여자의 해프닝을 그린 러브 액션 코미디다. ‘은하해방전선’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윤성호 감독 작품으로 TV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혁권이 출연하며 윤감독의 단편 ‘두근두근 영춘권’이 함께 상영된다.

이문식과 박지민·김여진이 주연을 맡은 ‘고래를 찾는 자전거’는 눈이 멀어가는 동생을 위해 남원에서 울산 장생포까지 고래를 찾아 자전거 여행



을 떠난 두 남매의 가슴 찡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또 신비로운 설화를 간직한 제주 섬의 참다운 매력을 보여 줄 제주산(産) 영화로 제2회영화제와 전주영화제 수상작인 ‘뽕뽕’과 ‘어이그 저 컷컷’(오명 감독)도 관객들을 만난다.

그밖에 제2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상 수상(2011)과 국내의 판타스틱영화제의 끊임없는 러브콜로 평단과 관객의 기대를 모았던 ‘에

일린 비키니’,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복지투쟁 과정과 음악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다큐멘터리 ‘꿈의 공장’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도약선생’ 상영후에는 윤성호 감독, 배우 박혁권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리며 ‘뽕뽕’과 ‘어이그 저 컷컷’을 예매하는 관객에는 DVD ‘아무도 모른다’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을 적신다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신수경(전남대 음악학과 교수) 피아노독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서울 세종 체임버홀(8월24일), 여수시민회관(9월21일) 공연에 이어 마련한 이번 연주회에서 신씨는 ‘탑’, ‘그라나다의 황혼’, ‘비 내리는 정원’ 등 세곡으로 구성된 드뷔시의 명곡

‘관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베토벤의 소나타 23번 ‘열정’, 클라라 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C장조’를 들려준다.

특히 신씨는 이 레퍼토리로 지난 8월말 체코 프라하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연주회를 열어 현지 음악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서울대를 졸업한 신씨는 인디애나

음대에서 피아노와 실내악을 공부, 연주박사를 받았으며 비엔나 등에서 30여회의 독주회를 열었다. 문의 010-8893-22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중년의 욕망

염창권 두번째 시집 ‘일상들’ 출간

중년 시인 염창권(51·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시진)씨가 일상이라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을 담은 두 번째 시집 ‘일상들’(나무아래서 펴냄)을 냈다.

중년의 나이에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시인은 그 뜨겁고, 파격적인 것들을 다양한 은유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또한 ‘담쟁이’ ‘강물에 뜬 페트병은 어디로 갔을까’ 등 사물을 관찰

하는 예리한 시선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읽어내는 50여 편의 시편을 엮었다.

특히 ‘독신’ ‘몽환의 기타’ 등 긴 호흡의 시들도 선보였는데 20여 년 내공을 키운 시인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염씨는 “이번 시집은 십여 년 동안 나를 이끌어왔던 사유의 편력들을 모았다”며 “조만간 시집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 출생인 염씨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서울신문 신춘문예



에 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그림이 때로 힘이 된다’와 시조집 ‘햇살의 길’, 비평집 ‘집 없는 시대의 길가’를 냈다. ‘행시’ 동인, ‘희망회’ ‘원탁시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비평문학상, 광주펜문학상, 무등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홍플렉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유·스퀘어사우나

24시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마사지)·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 위치: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062) 352-4455